



**가림막 철거... 탁 트인 靑문화전당**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14일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높이 6m·길이 1.3km) 가운데 인쇄길 구간(200m)을 착공 9년 만에 철거했다. 추진단은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펜스를 철거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시민 뜻 저버린 특정후보 지지 철회하라”

### 광주 국회의원 5명 윤장현 지지 선언 거센 역풍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강기정·김동철·장병완·박혜자·임내현)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한 지역민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이번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도 “특정인 지지는 새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낙하산 공천 시도는 구태정치인 실패”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5·18 관련단체도 가세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등 최근 정치사에 전례가 없던 국회의원들의 특정후보 지지가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다. 호남만으로 승리할 수 없고 호남을 빼고도 안 된다. ‘물같이 공천’은 어느 지역이나 당연하지만 특별히 호남 물같이 요구는 자존심 문제다. 호남도 물같이 개혁공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치권·시민단체 등 비난 확산 “구태정치” 의원직 사퇴 요구 일부선 지지...지역민심 분열

전날 5명 국회의원을 기자회견에 불참한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는 하는 것은 코앞에 다가온 경선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며 “광주시민이 참여해 축제 속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새 정치에 부합하고 새 정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병만 전 노무재단 이사장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다 수도권 등 전체 국민의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반민주, 반개혁적인 구시대적 행태를 보인 특정후보 지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5명이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시민의 권리를 찬탈하려 한 오만하기 짝이 없는 폭거이자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6·4 지방선거 광주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는 불공정 경선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유감”이라며 “예산이 곧 본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 우리 지역의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새정치와 개혁적 공천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18구속부상사회와 5·18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을 선택해 준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인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를 선언한 5명의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앞서 이날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 지지자 100여명은 각각 ‘구민주당 광주당원 모임’과 ‘새정치연합을 사랑하는 당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입구에서 윤 전 위원장의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 5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광주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회 등 일부 단체와 새정치연합계 일부 예비후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윤장현 전 위원장 지지선언’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광역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두 갈래로 나뉘는 양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 새정치, 성범죄·음주전과자 등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반대는 역사 모욕

###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난색 표명에 반발 잇따라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정부 측을 거들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 회의에서 “5·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현재 애국가나 광복절, 3·1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것만 빼내서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지정)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의 의정협의회가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도 최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도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보존처와 국무총리는 이념 논쟁과 국론 분열을 운운하며 계속 무시해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3·1절이나 4·19 등 국가기념일에는 모두 기념곡이 있으며,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식순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기념곡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도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4, GWANGJU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광주 / 東亞文化都市 2014 光州

**광주 개최행사**  
한중일청소년문화교류 [8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시 [9-10월]  
동아시아문화도시개발 국제컨퍼런스 [10월]  
한중일 전통의상 전시회 [10월]  
추억의 7080충장축제 [10월]  
광주김치축제 특별전시 [10월]외

**해외 교류행사**  
취안저우시 민남문화축제 [6월]  
청소년 무형문화유산 탐방 [8월]  
한중일 예술제 [9월] 외

동아시아 문화의 빛, 광주  
함께하는 도시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주관 |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 문의 | (062)611-2423~2427